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중단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 공개입양 가정의 입양 현황과 자조집단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

김 향 은¹⁾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입양가족을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공개입양 가족들이 기여한 바가 자못 크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가족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에 착수하기에 앞서, 32명의 공개입양 부모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입양 현황, 공개입양 문제, 자조집단과 관련된 경험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이 입양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으나, 입양과 관련된 법률적·재정적 문제, 공개와 관련된 갈등, 입양자녀의 부적응 행동, 사회적 편견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면서 법률제도 정비, 입양비·양육비 지원, 사후지원 서비스 개발, 입양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대부분 공개입양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고, 공개입양의 장점으로 입양아의 충격 완화, 비밀유지의 고충으로부터의 자유, 주변의 호의적 관심 증가, 입양관련 지원 요청의 수월성, 입양 홍보의 효과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가정에서는 입양 자녀들이 어린 관계로 아직까지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들의 경우 공개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일부 부모들은 공개로 인한 자녀의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우려하고 있었고, 자기과시적인 부모로 오해받거나 특별 또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조집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고, 다른 입양부모, 대중매체, 종교기관 등을 통해 가입하게 된 자조집단 활동에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서적·정보적 지원과 입양가족간의 교류를 자조집단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과 단조로운 프로그램, 회원 확보의 어려움을 모임의 단점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자조집단 운영의 체계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전문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 및 재원의 확충을 바라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입양, 공개입양, 가족발달, 사후지원, 자조집단

1) 교신저자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E-mail : hekim@kosin.ac.kr)

I. 서론

부모의 이혼, 사망, 빈곤, 혼외 임신 등의 이유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소년 가정을 이루어 살거나 시설 보호, 가정 위탁, 입양 등의 사회적인 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데, 최근의 동향은 시설 보호나 소년 가정의 비율은 줄어들고 가정 위탁과 함께 입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05).

입양은 비혈연 관계에 있는 성인과 아동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입양을 통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발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입양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Altshuler & Gleeson, 1999; Borders et al., 1998).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혈연을 중시하는 뿌리 깊은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입양 아동 개인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존중하기 보다는, 부모와 가문의 필요에 의해 가계 계승이나 유산 상속, 가족 결속, 노후 부양, 조상 숭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족 최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유규용, 2002).

이러한 풍토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입양아와 입양가족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매우 편파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이 성립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황이었으며, 입양한 사실을 외부에 절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비밀리에 남자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로 인식되어 왔다(이경안, 2003; 이봉주, 2004).

공식적인 입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54년 으로부터 2004년 현재까지 약 22만 건의 입양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약 2/3가 국외로 입양되었고 나머지 1/3 정도만이 국내로 입양되었다. 해외입양 반세기를 넘어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입양아의 60%가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해외입양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오면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통계청, 2005).

이처럼 요보호 아동의 입양과 그 가운데서도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입양 대상으로 남아를 선호하던 패턴에서 여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의 흥미로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만 해도 여아의 입양은 35.8%에 그쳤다. 이후 1980년 46.7%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남아의 입양을 앞질러 57.6%를 차지하였다. 2004년 현재에는 69.9%에 이르러 여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홀트아동복지회, 1995).

아울러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고 외부에 공개하는 공개입양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입양가정 중 공개입양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7-1989년에는 10.8%에 불과했으나 1995-1997년에는 16.3%, 그리고 2000-2004년에는 약 25%에 달함으로써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김지연, 1998; 정순란, 2005, 홀트아동복지회, 1995). 이와 같은 양상은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고 마치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거나 입양 후 계속해서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자 한 기존의 입양 관행과 크게 대조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개입양 부모들을 중심으로 입양가족단체(한국입양홍보회: MPAK)가 결성되어 전국 15개 지부에 500여 가정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계일보, 2005). 이들은 공통적인 조건, 경험, 문제, 욕구 등을 공유하고 상호 필요한 활동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원조하는 자조집단의 성격을 지니며(이근홍, 2006), 입양가족 정기모임, 입양부모교육, 입양가족 캠프, 입양아 캠프, 입양 홍보 등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 입양부모, 입양아동에게 입양과 관련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입양 전후 지원 체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도미향 등, 2006; 배태순, 2004).

이상과 같은 제반 변화의 흐름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 부모의 필요에 의한 성인 위주의 입양에서 입양아 개인의 욕구와 복지를 중시하는 관점으로서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시대에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 가운데 하나로 입양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 가정의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예고하는 징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더불어 입양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입양 현황이나 공개입양 가족의 적응 과정, 해외 입양아의 모국 방문, 유명 연예인들의 입양 사례 등이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면서 입양아와 입양가족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에 비해 그 동안 학문적인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입양가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많지 않았던 것은 비밀입양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입양가족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배태순, 2000; 정순란, 2005).

지금까지 입양가족을 주제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의 양적인 면이나 내용 및 방법 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공개입양 가정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가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개입양에 관한 견해와 현황,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지원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개입양에 관한 태도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부모들이 공개입양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경숙, 2003).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공개입양의 특성을 다룬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공개입양이라 함은 입양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친가족과 입양가족 간에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서구식의 완전 개방형의 공개가 아니고, 친가족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 개방형의 공개인 상황이며, 이는 비밀 입양이 오랜 기간 동안 입양실무의 주류를 이루어 온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배태순, 2004; 정순란, 2005; 현대옥, 2004).

입양가족의 적응 및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 가운데는 입양부모들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장애아를 입양한 부모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연구(정맹진, 2002)와 입양 이후의 양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양어머니에 대한 입양아의 애착 안정성이 높으며,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양어머니가 입양아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연구(한동수, 2001), 그리고 공개입양 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으로, 입양의 과정에서 친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부모로서의 정당성을 위협받는 문제 등을 다룬 연구(배태순, 2000; 현태옥, 2004)가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적·정서적 지원의 출처로 사후지원 서비스와 입양가정 자조집단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김향은, 2002; 백경숙, 변미희, 2001). 실제로 입양으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는 것이 입양가족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권지성, 2003; 윤현선, 2001).

한편 사후지원 서비스에 대한 입양가족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부모들이 사후지원을 실시하거나 주관했으면 하는 주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접근성, 지속성, 효율성, 참여도,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정부나 입양기관 보다 입양가정 자조집단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후지원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보편적인 자녀양육 지침과 입양으로 인해 당면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요구하고 있었다(김향은, 2002; 백경숙, 변미희, 2001).

이상에서 그 동안 수행되어 온 입양가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간략히 고찰해 보았는데,

대부분 소수의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입양 후 한 시점에서 입양가족의 문제를 일회적으로 조명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사실 입양의 절차를 생각해 볼 때 입양아가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입양의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입양은 이처럼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가족발달 과정이라 할 수 있다(양점도, 김호연, 1997). 즉 입양가족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의 수행과 규범적·비규범적 위기의 경험과 관련된 전생애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단적인 관점에 입각한 입양가족의 적응 및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까지 입양아와 입양가족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밀입양의 관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연구 대상의 수나 내용 및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가 입양가족에 대한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사에 머무는 수준이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가족이 겪게 되는 변화와 발달의 양상은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입양 후 이루어지는 입양가족의 발달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그 첫 단계의 연구 작업을 착수하고자 한다. 공개입양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가 뿌리 깊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입양을 꺼리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현저하고 입양을 하더라도 비밀입양을 하는 경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입양을 통해 그리고 입

양의 공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 인지를 상세히 조명하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 면서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는지 그 발달적 변화의 추이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자조집단에 가입한 입양가정의 부모 들을 대상으로 이들 가족의 일반적인 배경, 입양 관련 현황, 공개입양과 결부된 문제, 그 리고 자조집단 참여 경험에 대한 pilot study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양가족의 적응 과정 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관련 분야의 후속 연 구를 자극하며, 입양아와 입양가족의 발달과 육구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 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입양 사실을 외부에 공개 한 32개의 공개입양 가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가정의 부모들 중 한 사람과의 면접 을 통해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과 사후 지원과 관련된 이들의 자조집단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입양부모들 은 매월 한 차례의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공 개입양 가정의 자조집단 회원이었다. 연구대 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32개 가정 가운데 인터뷰에 응한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6명씩이었다. 연령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걸쳐 분포 되어 있었으며, 45-49세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가 2/3이상이었고, 전업주부와 전문직·사무직 종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월평균 소 득이 200-299만원, 300-499만원인 경우가 조사 가정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경남 지 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결혼한 지 11-15년 경 과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의 부모 들이 친자녀가 있었음에도 입양을 하였고 입 양아를 포함한 전체 자녀수는 1명에서 5명까 지 다양했는데,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명, 3·4명 순이었다. 모 든 조사 대상자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절대다수 가 개신교인이었다.

모두 17개 가정의 부모들이 친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수에 있어서는 2명의 친자녀를 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아들과 딸이 각각 절반 정도였다. 연령은 19-24세가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이 6-12세, 13-18세 순이었다. 이들 의 나이를 통해 짐작이 되듯 대부분의 친자녀 들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 고 있었으나, 대학을 졸업한 미혼의 직장인 자녀도 있었다. 한편 입양아의 수는 1명이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2명이었으나 3명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입양아의 성은 4:6 정도의 비 율로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았고, 이들의 현 재 나이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2-5세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아동기에 해당하는 6-12 세, 영아기에 해당하는 1세 이하의 순이었다. 한편 이들 입양아의 입양 당시 연령은 거의 대부분 1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공개입양 가정의 입양 전 반에 관한 현황 파악, 공개입양과 관련된 문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부 모 (32명)	지 위	부 모	16 16	50.0 50.0
	연 령	35-39세	7	21.9
		40-44세	7	21.9
		45-49세	17	53.1
		50-54세	1	3.1
	학 력	중졸	2	6.3
		고졸	8	25.0
		대졸	15	46.9
		대학원졸	7	21.9
	직 업	사무직	7	21.9
		교육직	4	12.5
		전문직	7	21.9
		일용직	1	3.1
		서비스직	4	12.5
		전업주부	9	28.1
	월소득	200만원 미만	4	12.5
		200-299 만원	5	31.3
		300-499 만원	9	28.1
		500-999 만원	10	15.5
		1,000만원 이상	4	12.5
	거주지	경북	4	12.5
		경남	27	84.4
		기타	1	3.1
	결혼기간	6-10년	4	12.5
		11-15년	17	53.1
		16-20년	5	15.6
		21-25년	6	18.8
	친자녀	유 무	17 15	53.1 46.9
	자녀수	1명	9	28.1
		2명	10	31.3
		3명	6	18.8
		4명	6	18.8
		5명	1	3.1
	종 교	개신교	30	6.3
		천주교	2	93.7
친 자 녀 (31명)	수	1명	7	38.9
		2명	9	50.0
		3명	2	11.1
	성	남	16	51.6
		여	15	48.4
	연령	6-12세	11	3.2
		13-18세	7	38.7
		19-24세	12	22.6
		25세 이상	1	35.5
	학 년	유치원생	2	6.5
		초등학생	12	38.7
		중학생	0	0.0
		고등학생	5	16.1
		대학생	10	32.2
입양자녀 (48명)	수	직장인	2	6.5
		1명	19	59.4
		2명	11	34.4
		3명	1	3.1
	성	남	20	41.6
		여	28	58.4
	연 령	1세 이하	15	6.3
		2-5세	30	62.5
		6-12세	3	31.3
	입양당시 연령	1세 미만	38	79.1
		1-2세	5	10.4
		6-12세	5	10.4

제의 분석,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조집단에 대한 경험 등 세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각 영역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입양 가정의 입양 일반에 관한 현황 파악에서는 입양의 동기, 입양을 결정한 사람, 입양 의뢰 기관, 입양 당시 가족 및 친지들의 반응, 입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입양과 관련된 문제나 입양으로 인한 애로 사항, 대외적인 요구 사항, 그리고 다른 가정에 대한 입양 권장 의사 등이 다뤄질 것이다.

둘째, 공개입양과 관련된 문제의 분석에서는 공개입양의 동기, 공개입양을 결정한 사람, 입양을 공개한 시기와 범위, 입양 사실을 공개했을 때의 입양아 연령, 공개입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공개입양의 장단점, 추가 입양시의 공개 의사, 다른 입양가정에 대한 공개 권장 의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셋째, 자조집단 경험에 대한 조사에는 공개입양 자조집단의 필요성, 가입 경로, 참여 빈도, 주요 프로그램, 자조집단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 자조집단의 장단점, 향후 개선 방안, 다른 입양가정에 대한 추천 의사 등, 자조집단에 대한 부모들의 견해 및 요구 등이 논의될 것이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공개입양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평생에 걸쳐 경험하게 되는 입양가족으로서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주된 연구 주제, 즉 공개입양 가족의 입양 현황, 공개입양과 관련된 문제, 자조집단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단 각 주제별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을 조사 항목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입양관련 전문서적, 최근 통계자료, 대중매체 보도기사, 입양가족 수기 등을 고찰하고 입양부모들의 자문을 거쳐 세 주제별로 10개씩의 질문과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에 관한 10개의 질문 등 총 40개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경상도 지역 공개입양 자조집단 소속의 32개 공개입양 가정을 선정하였다. 2005년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아동학·가족학·교육학을 전공한 3인의 면접자가 32개 가정의 부모들을 상대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1인당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가량이 면접에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향후 지속될 종단연구를 위해 가족별로 부호화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공개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결과 및 해석

입양 관련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양의 동기, 결정인, 결정 시기, 의뢰 기관, 가족 및 친지의 반응, 만족도, 애로 사항, 대외적 요구 사항, 추가 입양 의사, 입양 권장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공개입양 부모들의 입양 동기에 관한 답변을 보면, ‘불임으로 인해’라는 답변이 가장 많

표 2. 공개입양 가정의 입양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입양의 동기*		불입	16**	45.7
		종교적 신념	8	22.9
		사회적 헌신	3	8.6
		주변의 권유	3	8.6
		기타	5	14.2
입양 결정자		남편	9	28.1
		아내	8	25.0
		공동	15	46.9
입양 결정시기	유자녀	혼전	1	38.9
		산전	1	50.0
		산후	15	88.2
	무자녀	결혼후 5년 내	2	13.3
		결혼후 6-10년	9	60.0
		결혼후 11-15년	4	26.7
입양 의뢰기관		입양 전문기관	25	52.1
		아동 보호시설	19	39.6
		개별적인 입양	4	8.3
주위의 반응	친자녀	긍정적	31	100.0
		부정적	0	0.0
	친척	긍정적	22	68.7
		부정적	8	25.0
		무반응	2	6.3
	친지	긍정적	23	71.8
		부정적	6	18.8
		무반응	3	9.4
입양 만족도		매우 만족	29	90.6
		약간 만족	2	6.3
		보통	1	3.1
애로사항*		법제도의 미비	5	13.5
		입양공개 갈등	4	10.8
		입양아 부적응	3	8.1
		입양비용 부담	1	2.7
		사회적인 편견	1	2.7
		기타	5	13.5
		없음	18	48.6
요구사항*	국가	양육비의 지원	23	53.5
		입양홍보, 활성화	9	20.9
		법제도의 정비	6	14.0
		입양비용 지원	3	7.0
		기타	2	4.6
	입양기관	사후지원·관리	9	41.0
		입양비용 경감	7	31.8
		입양 대외홍보	5	22.7
		기타	1	4.5
	사회	입양에 대한 편견 불식	7	31.8
		입양에 대한 관심, 동참	5	22.7
		입양홍보 및 교육	5	22.7
추가입양 의사		유	11	34.4
		무	16	50.0
		미정	5	15.6
입양권장 의사		유	31	3.1
		무	0	0.0
		중립	1	96.9

* 복수 응답

** 첫자녀 입양 후 친자녀를 갖게 된 1 가정과 출산 후 불임으로 입양을 한 1 가정이 포함된 숫자

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이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 ‘사회적인 기여와 헌신의 방편으로’, ‘주변의 권유로 인해’였다. 기타의 사유에는 “먼저 입양한 자녀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딸을 갖고 싶어서”, “첫 아이 입양 후 자신감이 생겨서”와 같은 답변이 있었다. 입양에 대한 결정은 부부 공동에 의한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입양을 결정한 시기는 친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출산 이후였으며, 불임 부부의 경우에는 결혼 후 6-10년 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입양 전문기관이나 아동 보호시설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하였으나 소수의 부모들은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사적인 입양을 하였다. 입양 당시 주위의 반응에 대한 물음에 친자녀들은 전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응답했고 친척과 친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입양에 대한 부모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서 거의 모든 부모가 입양한 사실과 입양아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입양으로 인한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이루었다. 입양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 가운데서는 호적법 등 입양관련 법제도의 문제, 입양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갈등의 문제, 입양아의 부적응 문제, 입양비용 부담과 사회적 편견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으며, 기타 뒤늦게 입양을 한 경우 부모자녀간의 연령차가 큰 데서 오는 세대간 격차와 이질감의 문

제, 입양아의 양육을 놓고 벌어지는 부부간의 의견 차이와 대립의 문제, 입양가족을 위한 사후지원 체계 미비로 인한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는 입양아의 교육, 의료 등을 위한 양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입양 홍보 및 활성화, 법제 정비, 입양비용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사항으로 입양휴가의 실시,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 등이 있었다. 입양 기관에 대해서는 입양에 필요한 비용 경감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양질의 사후관리 및 사후지원 서비스에 실시, 보다 적극적인 입양 홍보, 입양아와 관련된 정보제공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신생아와 영아 위주의 입양 방침을 재고하여 3세 이상의 유아나 아동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에 대한 요구로는 입양아와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불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입양에 대한 관심과 동참, 입양 홍보 및 교육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추가 입양의사가 없었으나 약 1/3 가량은 계획이 있었고 일부는 미정인 상황이었다. 한편 거의 모든 응답자가 다른 가정에 입양을 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공개입양과 관련된 문제

본 연구에 참여한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양 사실을 공개하게 된 동기, 공개입양을 결정한 사람, 입양을 공개한 시기와 범위, 공개 당시 입양아의 연령, 공개입양에 대한 부모 자신의 만족도, 공개입양의 장단점, 향후 추가 입양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공개할 의사, 공개입양을 하지 않은 다른 입양 가정에 공개를 권유하고 싶은 의사 등을

표 3. 공개입양과 관련된 문제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공개입양의 동기*	숨길 필요가 없고 떳떳하므로	9	28.1
	입양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	28.1
	입양을 널리 홍보하고 권장하고자	6	18.8
	자녀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3	9.4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2	6.3
	기타	3	6.3
공개입양 결정자	남편	5	15.5
	아내	2	6.3
	공동	25	78.2
공개입양의 시기	입양 당시	30	93.7
	입양 이후	2	6.3
공개입양의 범위	완전 공개	29	90.6
	일부 친족에게만 공개	2	6.3
	친족을 제외하고 공개	1	3.1
공개시 입양아 연령	영아기	18	37.5
	아동전기	4	8.3
	아동후기	1	2.1
	미정	20	41.7
	기타	5	10.4
공개입양 만족도	매우 만족	30	93.7
	약간 만족	2	6.3
공개입양의 장점*	입양아의 충격 완화	13	40.6
	비밀유지의 문제로부터 자유	6	18.8
	주변으로부터의 긍정적 관심	5	15.5
	국내입양 홍보·활성화 효과	3	9.4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쉬움	2	6.3
	무	3	9.4
공개입양의 단점*	입양아의 정신적 충격 우려	10	31.3
	자기과시적 부모로 오해받음	8	25.5
	입양으로 인한 특별차별대우	3	9.4
	무	11	34.3
추가 입양시 공개의사	유	30	93.7
	무	0	0.0
	미정	2	6.3
다른 가정에 권장의사	유	30	93.7
	무	0	0.0
	미정	2	6.3

* 복수 응답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개입양 부모들의 경우 공개입양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굳이 입양한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고 부모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비밀입양을 했다가 훗날 입양아가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충격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입양 홍보 및 권장의 취지에서’, ‘입양자녀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비밀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와 같은 답변이 뒤따르고 있었다. 기타 동기로 ‘입양 사실을 공개할 경우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얻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비밀입양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가까운 주변에서 접하게 되어’와 같은 사유가 언급되었다.

앞서 이들의 입양은 부부 공동의 결정이었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입양 사실 공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부부 공동 의사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거의 모든 가정이 입양 당시부터 입양을 외부에 공개하였고 두 가정만이 이후에 공개하였는데, 이 중 한 가정은 입양 후 3-4개월이 경과한 뒤에, 다른 한 가정은 6개월이 지난 뒤에 공개하였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입양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면 공개하였으나, 약 10%에 달하는 가정에서는 가문의 보수적인 전통과 공개입양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한 나머지 입양 사실을 일부 친족에게만 알리거나 또는 친족들만 모르게 하고 다른 지인에게는 알리는 부분적인 공개입양을 하고 있었다.

공개 당시 입양아의 연령을 물었을 때, 반 이상의 응답자가 자녀가 너무 어려서 아직 알

리지 않은 경우였다. 이들에게 입양 사실을 알릴 적당한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많은 부모들이 아직까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자녀에게 이미 공개한 경우 그 시기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양 사실을 말해 주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더러는 “말하지 않아도 자조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이 스스로 알게 된 것 같다”는 답변을 하였다. 기타의 경우에는 6세 이후에 입양된 아동들의 경우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입양 당시부터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은 공개입양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공개입양의 장점으로 ‘공개로 통해 입양아가 받게 될 충격을 미연에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어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입양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 ‘국내입양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 ‘공개 이후로 입양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었다. 공개입양 부모들에게 공개입양의 단점에 대해 물었을 때, ‘없다’는 답변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입양사실의 공개가 입양아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개입양을 한 부모를 자기과시욕이 강한 사람으로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 입양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가정과 다른 특별한 가정으로 우대 받거나 차별대우 당하는 경험 등을 단점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편 앞으로 추가 입양을 할 경우에도 공개

표 4. 공개입양 가정의 자조집단 참여 경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자조집단의 필요성	매우 필요	26	90.6
	약간 필요	1	3.1
	거의 불필요	1	3.1
	전혀 불필요	1	3.1
자조집단 가입경로	입양 부모	15	46.9
	대중 매체	9	28.1
	종교 기관	6	18.8
	입양 기관	2	6.3
자조집단 참가빈도	매월 1회	19	59.4
	격월 1회	6	18.8
	분기별 1회	6	18.8
	불참	1	3.1
집단활동 참여도	매우 소극적	24	75.0
	약간 소극적	4	12.5
	보통	2	6.3
	약간 적극적	1	3.1
	매우 적극적	1	3.1
자조집단 만족도	매우 불만	1	62.5
	약간 불만	1	21.9
	보통	3	9.4
	약간 만족	7	3.1
	매우 만족	20	3.1
추천 의사	유	31	96.9
	무	1	3.1
참여 프로그램*	사례 발표	7	31.4
	교육·학습	12	31.4
	정보 교환	16	23.5
	교류 및 친교	16	13.7
자조집단의 장점*	정서적 지지·자신감 획득	24	49.0
	유용한 지식과 정보 습득	20	40.8
	입양아·입양가족간 교제	4	8.2
	국내입양의 홍보 효과	1	2.0
자조집단의 단점*	체계적 운영 결여	9	37.5
	프로그램의 획일성	9	37.5
	시간적·공간적 제약	3	12.5
	고정적 참가회원 부족	2	8.3
	기타	1	4.2
앞으로의 개선방안*	프로그램의 다양화	9	32.1
	프로그램의 전문화	6	21.4
	체계적 관리·운영	6	21.4
	홍보 및 회원 확보	5	17.9
	재정적 자원 확충	2	7.1

* 복수 응답

입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두 명의 부모만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비밀 입양을 선택한 다른 입양가정의 부모들에게 공개입양을 권장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에도 이와 같은 양상의 답변이 나왔다. 즉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다른 입양 부모들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 단, 두 명의 응답자는 ‘같은 입양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공개입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밀 입양을 할 것이지는 그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자신이 공개입양을 했고 공개입양을 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가정의 부모들에게 선뜻 공개입양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조집단 참여 경험

공개입양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조집단의 필요성, 자조집단에 가입하게 된 경로, 참가 빈도, 자조집단 활동에 대한 참여도, 만족도, 주요 참가 프로그램, 자조집단의 장단점, 앞으로의 개선 방안, 다른 입양 가정에 대한 추천 의사 등 자조집단과 관련된 경험 및 요구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부모들이 자조집단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조집단이 이들 공개입양 부모들을 지원하는 유용한 네트워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입양가정 부모들이 자조집단에 대해 알게 되고 모임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다른 입양 부모들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 외에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나, 종교 기관(교회)도 정보 제공의 주요 출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입양부모들의 자조집단 참석 빈도를 보면 월 1회 개최되는 정기 모임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참석률과 함께 참여도 역시 대부분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이 모임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다른 입양가정의 부모들에게 자조집단 모임을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싶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입양부모들이 경험한 바 있는 주된 프로그램으로는 입양가정의 사례발표, 교육·학습, 정보교환, 입양가족간의 교류 및 친교로 조사되었다. 부모들은 이와 같은 자조집단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와 자신감을 얻고,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입양가족 상호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입양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모임의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구성이 단조로우며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면서,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회원과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IV. 논의 및 제언

입양 가족을 우리 시대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공개입양 가족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공개입양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과 가족 발달에 관해 장기적으로 살펴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첫 작업으로 공개입양 자조집단에 가입한 32개 가정의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방적인 면접을 통해 입양과 관련된 현황, 공개입양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조집단에 대한 입양부모들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해볼 수 있다.

첫째, 입양가정의 특성에 관한 현황을 바탕으로 입양가족을 위한 지원체계의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불임이 가장 주된 입양의 동기로 밝혀진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입양가족의 입양 전 상황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뜻한다. 흔히 입양가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입양을 하기까지의 복잡한 과정과 이와 결부된 문제를 간과한 채, 입양 이후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러나 입양부모들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 동안 불임이나 불임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한 바 있고 마지막 대안으로 입양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권지성, 2003; 정순란, 2005). 이처럼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불임 부부들은 불임 치료에 실패했을 때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쉽다(이경안, 2003). 따라서 불임을 극복하고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지원의 차원에서 불임 부부를 위한 입양 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입양부모들의 경우 입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많은 경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입양관련 법제의 미비, 입양비용의

재정적 부담, 소홀한 사후관리,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 등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입양가정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조사한 선행 연구(권지성, 2003; 정맹진, 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공식적인 입양 절차의 간소화, 입양비용의 지원 또는 삭감, 양질의 사후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부와 입양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많은 부모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 불식을 요구하였고,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친족들의 반대나 부정적인 시각을 우려해 입양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는 확대가족과 지역사회의 태도가 입양가정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의 하나라는 선행 연구(Frasch & Brooks, 2003)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 관공서, 학교, 병원, 복지기관, 종교기관 등을 통해 입양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행사나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등 이들의 사회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실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입양가정의 부모자녀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부적응 현상이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부모와 입양아간 나이 차이가 큰 몇몇 가정의 부모들이 연령차로 인한 세대차를 우려하고 있었으며, 6세 이후에 입양된 소수 입양아의 경우 한동안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흔히 입양아의 연령은 입양 후 적응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여겨지고 있는데, 공개입양 가정의 어머니 1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 체험을 조사한 한 연구(현태옥, 2004)에서도 생후 6개월 이후의 연장 아동을 입양했을 때 애착장애, 행동장애, 섭식장애, 정서장애 등과 관련된 양육의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양에 의해 제기되는 다양한 도

전에 개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의 요구에 맞는 집중적인 교육적·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O'Brien & Zamostny, 2003).

본 연구에서는 입양아의 연령이 영유아기와 아동에 집중되어 있고 친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차가 큰 상황이었으며 형제자매간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친자녀가 있는 가정은 친자녀가 없는 가정에 비해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Barth & Brooks, 1997), 친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입양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관련한 당혹감을 느끼거나 자녀간의 갈등을 겪을 수 있다(현태옥, 2004). 입양부모들은 일반부모들에 비해 부모됨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양육에 있어서도 더 큰 긍정적 기대를 갖지만, 입양자녀 양육에 관한 적절한 역할 모델을 찾기 어렵고, 양육에 대한 불확신이 높은 편이며, 자신을 친부모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메워주는 사람으로 폄하하는 사회적 편견 앞에서 심리적 손상을 받기 쉽다(한동수, 2001; O'Brien & Zamostny, 2003; Smith, 2001). 따라서 향후 이들의 부모역할과 관련된 심리적 역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아울러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의 지속적인 적응과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의 확립을 위한 사후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둘째, 공개입양과 관련된 문제의 분석을 통해 공개입양 가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공개입양을 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으며 다른 입양가족의 부모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은 의사를 표명했다. 입양아가 받

게 될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비밀유지의 어려움이 없으며, 주위로부터 호의적인 관심을 받게 되거나 입양과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기도 수월해진다는 것, 입양 홍보의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입양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자녀가 공개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고 입양부모를 자기 과시적인 인물로 비판하는 시각과 입양가족을 특별 또는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한편 절반가량의 가정에서 입양아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들의 경우 대부분 공개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입양아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개입양 가정의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여겨진다(권지성, 2003). 공개입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개방적 환경에서 입양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입양아는 자신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 영속되었고 그 가정에 태어난 것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음을 인식한다고 한다(O'Brien & Zamostny, 2003; Sharkey, 1998). 그리고 영아기 때로부터 입양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이가 커서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며(배태순, 2000; Miles, 1999), 입양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 하는 것이 입양아의 정체감과 자기가치감 발달, 심리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입양의 기본 요소가 된다고 한다(이미선, 2001; Hartman & Laird, 1990; Hoopes, 1990; Brodzinsky et. al., 1992). 또한 공개입양은 입양아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라는 두 세트의 부모를 생각할 수 있게 하며(이소희, 2004) 입양부모에게는 친부모로부터 아동을 빼앗길 수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점이 있

다고 한다(도미향, 2006; 배태순, 1998).

그러나 공개입양의 효과를 다룬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의 사례나 해외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우리의 상황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입양가정이 해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도전이나 과업은 그 가정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개입양이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서구의 경우와 같은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공개입양이 부모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입양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하여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중에서는 부모가 입양 사실을 말하기 전에 입양아가 자조집단 모임에 참석하면서 스스로 알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자조집단이 입양 사실 공개의 유용한 매체가 될 수도 있음을 반영하는 사례로, 앞으로 공개입양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 모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나가는 수단으로서 자조집단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자조집단 외에도 공개입양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겪게 되는 가족 안팎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입양의 과정을 재미있고 친근한 이야기로 엮은 입양 동화나, 입양에 관한 입양아의 반복적 질문이나 정서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지침서들이 다양하게 출판되어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조집단 제외하고는 입양공개와 관련된 도움의 출처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은 사전·사후 지원의

차원에서 입양기관이 공개입양에 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개입양 부모들의 참여 경험과 요구를 고려한 자조집단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개입양 부모들은 자조집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고, 자조집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정서적 지지와 자신감의 획득, 유용한 정보의 습득, 입양가족간의 친교를 이 모임의 장점으로 평가하고 이 모임에 대해 매우 만족해 했다. 거의 모든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에게 이 모임을 추천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이는 입양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정서적 지원의 지지체계를 갖는 것이 입양 후 적응에 큰 힘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입양부모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가장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역할 수행의 자신감이 증진된다는 연구(윤현선, 2001)나,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는 지지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양육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이나 상실감, 부모로서의 부적절감 등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권지성, 20003)와 같은 선상에서 본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개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의 필요성과 효용성의 측면에서 입양가정 자조집단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자조집단을 활용한 각종 사후 지원 서비스 개발의 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 모임의 장점으로 언급된 주된 사항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조집단

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거나 여타 기관의 사후지원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대상 가운데는 입양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조집단을 소개받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입양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입양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자조집단이 입양가족의 입양 후 적응뿐만 아니라 입양 전 선택과 결정에도 도움을 주는 지원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조집단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공개입양 자조집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모임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조집단의 단점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방식, 프로그램의 확실성, 시·공적 제약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회원 확보의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 적극적 홍보를 통한 회원 및 자원 확충이 제시되었다. 향후 자조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전·사후 지원은 이와 같은 현재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때 성공적인 수행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조집단의 활동을 더욱 정비해 나가는 일 못지않게 자조집단을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이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부모들의 자조집단 가입경로를 참고할 만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우 절반가량은 다른 입양부모들을 통해 이 모임을 알게 되었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나 종교기관을 통해 이 모임을 접하게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으로는 자조집단 모임을 체계

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자조집단에 대해 알림으로써, 앞으로 자조집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입양가족들의 성공적인 입양을 돕는 기폭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개입양 가정 대상의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입양가정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개입양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연구대상의 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연구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연구대상의 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입양부모는 물론 입양자녀, 친자녀, 친부모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령, 지역, 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입양 가족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내용과 접근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내용을 입양 이후의 과정에 국한하지 말고 입양 이전의 과정까지 확장함으로써, 입양 전후의 시점을 모두 포함하여 성공적인 입양과 관련된 가족 내외의 요인을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 내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적응 과정이나 전반적인 가족 역동(family dynamics)에 관심을 둔

입양가족의 가족주기별 가족발달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족 정책이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 요인이 입양가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주제들도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연구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입양가족의 적응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양적·질적 측정 도구의 개발과 입양가족 당사자들은 물론 입양가족의 친척이나 친지, 입양아의 친구나 교사 등 주변인의 평가를 반영하는 등 보다 다양한 접근법을 동원하는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연구보다 입양가족에 관한 연구는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이다. 입양가족에 관한 연구는 입양 전후 입양가족의 발달과업 수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게 된다. 예를 들자면 입양가정을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자원과 복원력은 무엇이며 입양가정의 스트레스원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이 주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Frasch & Brooks, 2003; O'Brien & Zamostny, 2003).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입양가족의 성공적인 적응이나 실패를 예측하는 이론적인 모델을 수립하는 것은 곧 입양가정의 건강한 가족발달을 돕고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전략의 수립으로 이어져 입양가족의 실질적 복지를 향상시킬 때 그 학문적 가치가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지성 (2003). 공개입양 가족의 적응 과정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연 (1998). 한국입양연황과 정책발전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향은 (2002). 입양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복지학회, 7(2), 35-50.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06). 아동복지론. 공동체.

배태순 (1998). 현대사회에서의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경남대학교출판부.

배태순 (2000).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의 뿌리 추구 욕구에 대한 이해.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6(1), 31-48.

배태순 (2004). 한국의 국내입양 발전과 전망, 입양: 실제와 정책, 그리고 다문화. 대한사회복지회입양국제컨퍼런스, 91-110.

백경숙, 변미희 (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서비스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권리연구, 5(2), 81-95.

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 통계연보.

서경숙 (2003). 전라북도 주민의 입양에 대한 태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세계일보 (2005). 12월 16일자.

양점도, 김호연 (1998). 국내입양 가정의 사후관리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4(1), pp. 47-61.

유규용 (2002).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의식에 관한 연구. 아동연구, 15(2), 107-134.

윤현선 (2001). 국내 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 역할 수행 자신감, 가족 적응력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안 (2003). 불임 여성의 스트레스 정도와 입양 인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근홍 (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이미선 (2001). 해외 입양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

-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봉주 (2004). 한국의 입양: 현황과 미래 전망. 입양 실제와 정책, 그리고 다문화. 대한사회복지회입양국제컨퍼런스, 61-89.
- 이소희, 최덕경, 강기정, 김훈 (2004). 가족 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 정맹진 (2002). 국내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순란 (2005). 국내입양 사업과 공개입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
- 한동수 (2001). 입양아의 입양당시 연령, 양어머니의 양육 기간 및 역할 만족도와 애착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대옥 (2004). 공개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홀트아동복지회 (1995). 홀트소식, 겨울호.
- Altshuler, S., & Gleeson, J. (1999). Completing the evaluation triangle for the next century. *Child Welfare*, 78(1), 125-128.
- Barth, R. P. & Brooks, D.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family structure and size and adoption outcome. *Adoption Quarterly*, 1, 29-56.
- Borders, L. et al. (1998). Are adop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at greater risk for negative outcomes? *Family Relations*, 47, 237-241.
- Brodzinsky, D. M., Schechter, M. D. & Henig, R. M. (1992). *Being Adopted: The Life-Long Search for Self*. NY: Doubleday.
- Frasch, K. M. & Brooks, D. (2003). Normative development in transracial adoptive families: an integration of the literature and implic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a theoretical framework. *Families in Society*, 84(2), 201-212.
- Hartman, A. & Laird, J. (1990). Family Treatment after Adoption: Common Themes. In D. Brodzinsky & M. Schechter(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221-239,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oopes, S. J. (1990). Adop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 D. Brodzinsky & M. Schechter(Eds.), *The Psychology of Adoption*. pp.144-166, NY:Oxford University Press.
- Miles, K. (1999). How to tell your child she's adopted. *Parenting*, 13(7), 219-220.
- O'Brien, K. M., & Zamostny, K. P. (2003). Understanding adoptive families: An integrativ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y*, 31(6), 679-710.
- Sharkey, P. B. (1998). Being adopted: Books to help children understand.. *Emergency Librarian*, 25(4), 8-10.
- Smith, J. (2001). The adopted child syndrome: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82(5), 491-497.

1차원고접수 : 2006. 01. 23.

수정원고접수 : 2006. 02. 28.

최종게재결정 : 2006. 03. 06.

Pilot Study of the Longitudinal Research on Adoptive Families' Adaptation Process: Current Status and Self-help Group Experience of Open Adoptive Families

Hyang Eun Kim

Division of Social Welfare, Kosin University

Adoption itself has been rare in our society, and when it occurs, it has been a norm for a sterile couple to adopt a boy confidentially. Recently open adoption is seen as an alternative and a few families adopted children openly. Despite of this revolutionary change, there has been few research on problems faced by these families and their need for post adoption services. This pilot study attempts to assess current status of open adoption, analyze problems faced by open adoptive families and their need for post adoption services and self-support group through interviews with 32 open adoptive parents. More than half of the subjects have their own biological children and they adopted a girl rather than a boy. Most adopted one or two infants, but a few families adopted the older from over 6. There were a few families who adopted more than three children.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 experience of being an adoptive parent and open adoptive parent. The problems faced by these open adoptive parents include lack of information about institutional inertia, management of traumatic experiences by their adoptive children, public's negative view of open adoption as "showing off," and treatment of these adopted children either with special favors or prejudices. Preliminary data show that adoptive parents are in serious need for post adoption services. Self-support group for adoptive families appears to be one of the most promising alternative and systematic promotion and support for such groups might be considered as an answer.

Key words : adoption, open adoption, family development, post adoption service, self-help group